

# 펠라고스 FXD GMT

## “줄루 타임”

프랑스 해군 특수 부대와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펠라고스 FXD 플랫폼이 이제 프랑스 해군 항공대의 니즈에 맞춰, 비행사 및 비행 지원 인원이 현지 시간 및 제3국의 시간대뿐만 아니라 “줄루 타임(Zulu time)”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한층 확장된 디자인으로 거듭났다. 새로운 펠라고스 FXD GMT는 METAS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획득하여 프랑스 해군 항공대 요원이 견뎌내야 하는 혹독한 실전 환경에서도 최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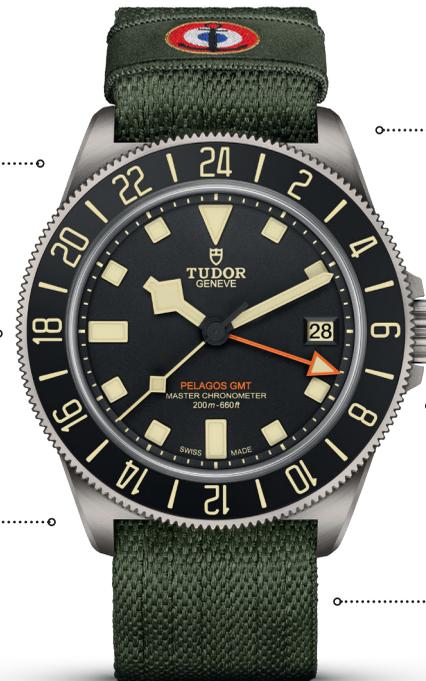
TUDOR



**블랙 매트 다이얼,**  
A등급의 “스위스 수퍼-루미노바®(Swiss Super-LumiNova®)”로 채운 아플리케 아워 마커, 베이지 컬러의 야광 소재로 어두운 환경에서 블루 컬러로 발광

**오렌지 컬러 24시간 “플루 타임”,**  
A등급의 “스위스 수퍼-루미노바®(Swiss Super-LumiNova®)”로 채운 화살촉 모양의 시침, 베이지 컬러의 야광 소재로 어두운 환경에서 그린 컬러로 발광

**자체 제작 칼리버 MT5652-U,**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COSC)의 인증 획득, 실리콘 헤어 스프링 및 65시간의 파워 리저브



**42mm 새틴-브러시된 2등급 티타늄 케이스,** 고정 스트랩 바와 싱글 블록 형태, 5등급 티타늄 케이스 백에 프랑스 해군 항공대 로고 및 1970년대와 1980년대 TUDOR M.N.각인에서 영감을 받아 2024 프랑스 해군을 의미하는 “M.N.24” 문구 각인



**티타늄 소재의 양방향 회전 베젤,** 세라믹 인서트와 A등급의 “스위스 수퍼-루미노바®(Swiss Super-LumiNova®)”로 채운 24시간 눈금, 베이지 컬러의 야광 소재로 어두운 환경에서 그린 컬러로 발광



**비행복에 사용된 그린 색상의 일체형 패브릭 스트랩,** 2등급 티타늄 핀 버클과 키퍼. 프랑스 해군 항공대 원형 로고가 새겨져 있고 탈착 가능한 추가 패브릭 키퍼



**양도 가능한 5년간의 보증**  
별도의 등록 또는 정기적인 유지보수 점검이 요구되지 않는 보증

튜더(TUDOR)는 1950년대부터 수십년간 프랑스 해군이 대담한 임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신뢰도 높은 다이버 워치를 공식적으로 공급해 왔다. 2021년에는 시계 케이스의 매우 견고한 고정(FiXeD) 스트랩 바를 의미하는 “FXD”가 특징인 최초의 펠라고스 FXD 모델이 출시되어 튜더와 프랑스 해군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다. 수년간 실전에서 사용된 펠라고스 FXD 플랫폼은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입증했다. 2024년에는 FXD 제품 라인이 해군 항공 작전을 책임지는 프랑스 해군 항공대(Aéronautique Navale)의 니즈에 맞추어 더욱 폭넓게 확장된다. 펠라고스 FXD GMT는 최대 3개의 시간대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그중 하나인 줄루 타임은 협정 세계시(Universal Time Coordinated, UTC)를 일컫는 군용 명칭이자 모든 비행사들이 참고하는 표준 시간으로, 주요 임무를 수행할 때 중요한 도구이다. 줄루 타임은 본초 자오선, 즉 경도가 0인 지점의 시간에 해당하며 이는 흔히 그리니치 평균시(Greenwich Mean Time, GMT)로 잘 알려져 있다. 전 세계 항공 분야에서 표준화되어 국가 및 시간대 간 의사 소통 시 혼란을 방지한다.

“줄루”는 항공 분야에서 “Z” 또는 “제로(zero)”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 음성 알파벳 코드이다.

줄루 타임은 브라이트 오렌지 컬러의 시침으로 표시되며, 24시간에 다이얼을 한 바퀴씩 회전한다. 이 시침은 한 번 설정되면 일반적으로는 재설정되지 않으며, 프랑스 해군 항공대의 요원들이 전 세계 항공 기준 시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각진 시침은 현지 시간을 표시한다. 이 시침은 와인딩 크라운으로 설정하며, 한 시간 단위로 “점프”하여 시간대 변경 시 손쉽게 설정이 가능하다. 시침이 자정을 지나면서 앞이나 뒤로 이동할 때 날짜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제3국의 시간대는 24시간 야광 양방향 베젤과 오렌지 컬러의 줄루 타임 시침으로 확인할 수 있다.



“펠라고스 FXD GMT는 최대 3개의 시간대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그중 하나인 줄루 타임은 협정 세계시(Universal Time Coordinated, UTC)를 일컫는 군용 명칭이자 모든 비행사들이 참고하는 표준 시간으로, 주요 임무를 수행할 때 중요한 도구이다.”

## 튜더와 프랑스 해군

튜더는 2021년 프랑스 해군과의 협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1956년부터 시작된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1956년 당시, 툴롱(Toulon)에 기반을 둔 프랑스 해군 소속 과학 기관 G.E.R.S. (Groupe d'Étude et de Recherches Sous-Marines)는 실제 환경에서 시계를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이스터 프린스 서브마리너를 제공받았다. 전달된 모델은 레퍼런스 7922와 7923으로, 두 모델 모두 수심 100미터(330피트)까지 방수가 가능했으며, 각각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와 수동 와인딩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었다. 당시 G.E.R.S. 지휘관은 두 모델의 방수 기능이 “완벽”하며, 성능이 “전적으로 정확하다”고 판단했다. 스위스 제네바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인 튜더가 제공한 장비들이 가진 가능성에 확신을 얻은 지휘관은 곧바로 더 많은 시계를 주문했고, 이로써 튜더는 1961년 “프랑스 해군 공식 납품 브랜드”로 인정받게 되었다.

튜더는 지속적으로 다이버 위치를 개발해왔으며, 프랑스 해군은 이후 수십 년 동안 다양한 튜더 시계들을 사용했다. 현재 프랑스 해군이 사용한 튜더의 다이버 워치 중 가장 유명한 모델은 아이코닉한 블루 다이얼과 베젤이 돋보이는 레퍼런스 9401이다. 케이스 백에는 프랑스 해군의 이니셜인

“M.N.”과 생산 연도가 새겨져 있으며, “스노우플레이크” 헬즈와 아워 마커가 돋보이는 버전과 이후 삼각형 아워 마커를 갖춘 버전으로 두 가지 구성이 제공되었다. 이 모델은 1970년대 중반에 출시되어 1980년대까지 프랑스 해군에 공급되었다. 21세기에도 특히 프랑스 해군의 다이빙 학교와 전투 수영사에 의해 계속 사용되었다.

2021년, 유사 깊은 협업을 다시금 되살리는 의미로 튜더가 프랑스 해군의 전투 수영사들과 함께 수중 내비게이션을 위한 테크니컬 워치를 새롭게 선보였다. 그들의 니즈만큼 까다롭고 정밀한 사양을 기반으로 개발된 펠라고스 FXD 모델은 42mm 견고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티타늄 케이스에 장착된 독특한 고정 스트랩 바와 같이 튜더 디자인에 다양한 기능적 요소를 새롭게 도입했다. 리그와 일체형으로 설계된 스트랩 바는 이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디자인적 요소이다. 이제 튜더와 프랑스 해군은 FXD 플랫폼을 해군 항공 분야의 시간 측정을 위한 견고한 솔루션으로 활용하여 펠라고스 FXD GMT를 통해 오랫동안 함께해 온 역사의 새로운 장을 펼쳐 보이고자 한다.



"이제 튜더와 프랑스 해군은 FXD 플랫폼을 해군 항공 분야의 시간 측정을 위한 견고한 솔루션으로 활용하여 펠라고스 FXD GMT를 통해 오랫동안 함께해 온 역사의 새로운 장을 펼쳐 보이고자 한다."



## 기능을 따르는 형태

라팔 마린(Rafale Marine) 전투기의 조종석, 아틀란티크 2(Atlantique 2) 장거리 초계기의 장비실, 또는 헬리콥터 항공모함에 위치한 관제탑은 프랑스 해군 항공대의 소속이라는 점 외에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모두 줄루 타임을 기준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튜더는 줄루 타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펠라고스 FXD GMT를 개발했다. 여러 시도를 통해 검증된 FXD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 시계는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정 스트랩 바가 장착된 견고하면서도 가벼운 2등급 티타늄 케이스와 200미터 방수 기능을 갖추었으며, 전체를 브러싱 처리하여 매트한 효과가 돋보인다. 고성능 메카니컬 무브먼트를 탑재한 42mm 케이스는 색상의 대비가 뚜렷한 다이얼과 컬러 코드로 구분되는 핸즈가 특징이며, 화살촉 모양의 24시간 줄루 타임 시침은 브라이트 오렌지 컬러의 래커를 사용하여 독특한 매력을 자아낸다. 이러한 특징은 어두운 환경이나 야간에 야광 소재를 사용하여 핸즈, 아워 마커, 베젤로 시간 측정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가독성을 한층 향상했다. 또한 아워 마커와 더불어 시침, 분침, 초침은 블루 컬러로 발광하며 24시간 시침과 24시간 베젤의 눈금은 그린 컬러로 발광하여 대비를 이룬다. 이는 언제나 줄루 타임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세심한 디테일이다. 여기에 와인딩 크라운으로 조작하여 시간과 날짜를 설정할 수 있고, 점핑 아워 기능이 탑재된 날짜 표시 기능을 갖춘 실용적인 MT5652-U 자체 제작 칼리버가 장착한다면 하늘을 누비는 임무에 적합한 시간 측정 틀이 완성된다.

더불어 펠라고스 FXD GMT가 프랑스 해군 및 항공 부문에서 공식 의뢰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5등급 티타늄 케이스 뒤편에는 날개 달린 닷 위에 별을 장식한 프랑스 해군 항공대(Aéronautique navale)의 로고가 장식되어 있으며, 시계의 생산 연도를 더한 “프랑스 해군(Marine nationale) 2024”를 의미하는 역사적인 “M.N.24” 문구가 각인되어 있다.



## 프랑스 해군의 유산을 함께 엮어낸 브레슬릿

역사적으로 프랑스 해군은 튜더 시계를 브레슬릿 없이 공급받아, 핸드메이드 혹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제작한 스트랩을 장착하여 사용했다. 지금까지 특히 많이 사용된 스트랩은 두 가지로, 하나는 나일론을 꼬아 만든 블랙 스트랩이며, 다른 하나는 비교적 사용 빈도가 적지만 탄성이 있는 낙하산 가방 끈을 재활용해 만든 수제 스트랩이다. 이 스트랩은 특유의 그린 컬러와 중앙에 위치한 옐로우 혹은 레드 컬러의 라이닝이 특징이다. 펠라고스 FXD GMT의 패브릭 스트랩은 프랑스 해군과 불가분의 관계인 이 핵심 기능 유산에 경의를 표한다. 펠라고스 FXD GMT의 경우, 프랑스 해군 항공대의 비행사들이 착용하는 비행복 특유의 컬러와 동일한 컬러의 스트랩이 장착되었다.

일체형 패브릭 스트랩은 튜더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이며, 2010년 업계 최초로 시계에 패브릭 스트랩을 장착한 시계 브랜드 중 하나이다. 프랑스 생테티엔(St-Etienne) 지역에 위치한 줄리앙 포레(Julien Faure)사에서 19세기부터 전해져 내려온 자카드 방식으로 짠 패브릭 스트랩은 뛰어난 품질과 탁월한 내구성,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펠라고스 FXD에 새롭게 장착된 고품질 스트랩도 튜더와 줄리앙 포레가 함께 개발했다. 2mm 그린 폴리에스테르 직조 리본으로 제작된 스트랩은 2등급 티타늄 핀 버클과 키퍼, 그리고 탈착 가능한 패브릭 키퍼가 특징이다. 여기에는 프랑스 국기를 구성하는 블루, 화이트, 레드 컬러가 골드 컬러의 원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위에 블랙 컬러의 닷으로 장식한 프랑스 해군 항공대의 원형 로고가 섬세한 자수로 구현되어 있다.

놀라운 우연은, 1864년에 설립된 가족 회사인 줄리앙 포레도 오랜 세월 동안 프랑스 해군 함선의 이름이 새겨진 장식용 리본과, 프랑스 해군 수병이 착용하는 전설적인 레드 컬러의 방울 모자인 바치(bachi)에 들어가는 특정 부분을 생산해왔다는 점이다.

## 자체 제작 칼리버 MT5652-U

펠라고스 FXD GMT 모델을 구동하는 자체 제작 칼리버 MT5652-U는 튜더의 기술 개발 과정 특징을 잘 보여주며, 추가 모듈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기능, 이 모델의 경우 GMT 표시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개조형 무브먼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떤 누구에게는 작은 디테일일지 모르지만, 워치메이킹 정통파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무브먼트는 특유의 선 레이저 디자인으로 튜더 자체 제작 칼리버의 보편적인 외관과 느낌을 지니며, 브릿지에 “마스터 크로노미터” 마크가 있어 시계의 탁월한 성능을 강조한다. 모노블록 로터는 텅스텐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오픈워크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방사형 레이저 홈과 튜더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특유의 샌드 블라스트 디테일이 가미되어 있다. 브릿지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마감 기법의 조합을 엿볼 수 있다.

자체 제작 칼리버 MT5652-U는 견고함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2점 고정 시스템으로 견고해진 횡단 지지대를 통해 일정한 왕복 운동이 가능한 가변 관성 밸런스를 갖추고 있다. 이 무브먼트는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COSC)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성능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COSC의 인증 기준은 케이스를 조립하지 않은 무브먼트의 하루 허용 오차 범위를 -4초에서 +6초로 규정하고 있으나, 튜더는 완전히 조립된 시계를 기준으로 -2초에서 +4 이내의 오차 범위를 고집하며 METAS에서는 완전히 조립된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시계가 0초에서 +5초 이내의 오차 범위 내에서 작동할 것을 요구한다. 자체 제작 칼리버 MT5652-U는 그 정확성뿐만 아니라 15,000가우스의 자기장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항자성 기능까지 인증 받았다.

또 다른 특징은, 일명 약 65시간 동안 구동되어 “주말에도 멈추지 않는(WEEKEND-PROOF)” 자체 제작 칼리버 MT5652-U의 파워 리저브이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금요일 저녁에 시계를 푼 후 월요일 아침까지 착용하지 않아도 와인딩하거나 시간을 다시 맞출 필요가 없다.



"펠라고스 FXD GMT 모델을 구동하는 자체 제작 칼리버 MT5652-U는 튜더의 기술 개발 과정 특징을 잘 보여주며, 추가 모듈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기능, 이 모델의 경우 GMT 표시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개조형 무브먼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떤 누구에게는 작은 디테일일지 모르지만, 워치메이킹 정통파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 튜더 자체 생산 시설

모든 튜더 시계는 스위스 르 로클에 위치한 새로운 튜더 자체 생산 시설에서 튜더의 높은 기준에 따라 조립되고 완전한 테스트를 거친다.

이 새로운 최첨단 시설은 위치메이커들의 노하우와 최고의 생산 관리 및 자동화된 테스트 시스템을 결합하여, 3년간의 공사 끝에 2021년 완공되었다.

튜더의 브랜드 컬러인 레드로 외부를 장식한 이 생산 시설은 총 5,500 제곱 미터에 달하는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에 설립된 튜더 무브먼트 생산 시설인 케니시(Kenissi) 생산 시설과 물리적,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케니시와 튜더 소유 계열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튜더는 고성능 메케니컬 칼리버의 개발과 생산을 통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튜더는 이제 핵심 부품의 제조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여 탁월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 튜더 보증

튜더는 창업자 한스 빌스도르프가 1926년 브랜드를 출시한 이래, 그의 이상적인 워치메이킹에 대한 비전에 따라 최고의 견고성, 내구성, 신뢰성, 정확성을 갖춘 시계를 제작해왔다. 이러한 경험과 시계의 우수한 품질에 대한 지식을 보유했다는 자신감을 기반으로 튜더는 모든 제품에 대해 5년간 보증을 제공한다. 이 보증은 별도의 등록이나 정기적인 유지 보수 점검을 요하지 않고, 보증 기간 동안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튜더는 시계의 모델과 일상적인 사용 범위에 따라 대략 10년마다 서비스를 받도록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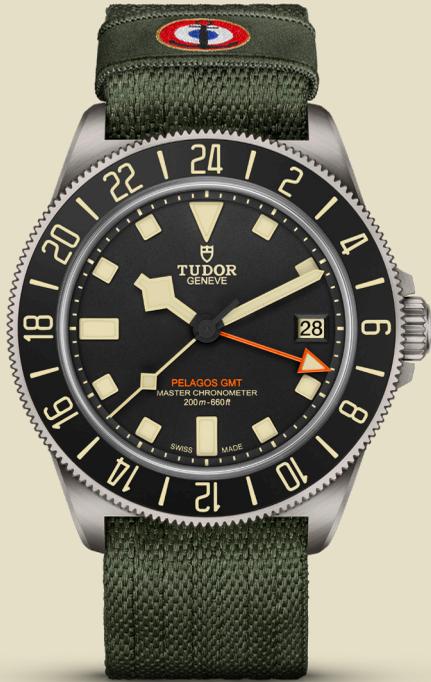
## 튜더의 "본투데어" 정신

2017년, 튜더는 브랜드의 도전 정신을 담아 "본투데어(Born To Dare)"라는 고유의 슬로건과 함께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 튜더의 본투데어 정신은 오랜 기간 동안

육·해·공 그리고 얼음 위에서 과감하게 모험을 하는 이들의 손목에서 함께 해왔다. 이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착용이 가능한 합리적 가격의 손목 시계를 제공하겠다는 신념으로 튜더를 설립한 한스 빌스도르프의 혁신적인 비전과도 일맥상통하며, 첨단 워치메이킹 산업에서 놀라운 혁신으로서 벤치마킹되고 있는 튜더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증명하기도 한다. 대담한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놀라운 업적을 달성한 최고의 앰버서더들이 이처럼 훌륭한 튜더의 본투데어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 튜더 소개

튜더는 세련된 스타일과 입증된 신뢰성, 그리고 우수한 품질의 시계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이다. 튜더의 기원은 롤렉스 창립자인 한스 빌스도르프(Hans Wilsdorf)를 대신하여 "더 튜더(The TUDOR)"가 처음 브랜드로 등록된 19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946년 공식적으로 Montres TUDOR SA 회사를 설립하여 보다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품질을 갖추면서 전통적인 롤렉스 철학을 존중하는 시계를 생산했다. 그들의 역사를 통틀어, 견고성과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튜더 시계는 육·해·공 및 얼음 위에서 가장 대담한 모험가들에 의해 선택되었다. 오늘날 튜더 컬렉션에는 펠라고스, 블랙 베이, 1926과 로열 등의 상징적인 모델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부터 튜더는 또한 다양한 기능과 우수한 성능을 가진 자체제작 메케니컬 칼리버가 장착된 모델을 제공해왔다.



Swiss price  
(VAT incl.)  
**CHF 4'350.-**

# 펠라고스 FXD GMT

## “줄루 타임”

레퍼런스 2542G247NU

### 케이스

세틴 브러시된 2등급 티타늄 소재의 42mm 케이스, 두께 12.7mm, 러그 투 러그 52mm 고정 스트랩 바  
5등급 티타늄 케이스 백

### 베젤

2등급 티타늄 소재의 24시간 양방향 회전 베젤에 블랙 세라믹 인서트

### 와인딩 크라운

튜더 실드 로고가 양각으로 장식된 2등급 티타늄 크라운

### 다이얼

블랙

### 크리스탈

사파이어 크리스탈

### 방수

METAS 인증  
200미터(660피트) 방수

### 스트랩

2등급 티타늄 핀 버클과 키퍼를 갖춘 그린 컬러의 패브릭 스트랩  
탈착 가능한 패브릭 키퍼

### 무브먼트

- ▶ 자체 제작 칼리버 MT5652-U(COSC 및 METAS 인증)
- ▶ 양방향 로터 시스템을 갖춘 셀프 와인딩 메케니컬 무브먼트
- ▶ GMT 기능 탑재

### 파워 리저브

METAS 인증 65시간 파워 리저브

### 정확성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 (Official Swiss Chronometer Testing Institute, COSC)의 인증  
METAS의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 기능

- ▶ 다이얼 중앙에 위치한 점핑 아워, 24시, 분, 초침
- ▶ 점핑 아워 시침과 연동되는 3시 방향의 날짜창(비수정 범위 없음)
- ▶ 시간을 맞출 때 초침이 정지하여 정확한 시간 설정 가능

### 오실레이터

- ▶ 가변 관성 밸런스, 스크류를 사용한 미세 조정
- ▶ 자기장에 반응하지 않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
- ▶ 진동수: 시간당 28,800회(4Hz)

### 총 직경

31.8mm

### 두께

7.5mm

### 보석 수

28개



[tudor.watch/Pressroom](https://tudor.watch/Pressroom)



**TUDOR**